복음적 충격요법을 통한 위기탈출

(사무엘상 30:1~10)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 충격요법을 통한 위기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적 충격요법을 통한 위기탈출'

"충격요법"이란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정신분열증이나 심장마비증상에 대해 전기쇼크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충격요법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각 나라마다 담배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금연광고를 합니다. 흡연에 의한 신체 장기가 손상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의 호러 영화의 장면을 능가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격요법의 원리를 얼마든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던 사장님이 고민 끝에 자살을 하려는 경우에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수면제를 먹고 죽기로 작정을 했는데, 현관문을 박차고 아내가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맏아들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업이 안 돼서 오랜 기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싹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입장에

서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사실은 더 큰 충격이므로 자살까지 몰고 가던 사업 문제는 밀려나고 마는데 충격요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는데 밖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식들과 귀중품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충격요법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이,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작은 충격들은 충격이 아니고 그 작은 충격들이 상황적으로 실제 주어졌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쫓기거나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비교적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자살하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아내도 건강하고 비록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팔아야 되고 세 끼 먹던 것을 두 끼 밖에는 먹지 못하더라도 아들과 아내에게 죽음이 닥치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사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격요법은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빠져 들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충격은 진짜 큰 충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몰입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작은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색다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전쟁에 참여를 요청 받았으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철천지원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자녀와 재산을 다 사로잡아 가버려서 시글락이 텅 비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과 추종자들이 탈진할 정도로 울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600명 추종자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유로 다윗을 지목하게 됩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담담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그 다급함의 정도를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상황이 바뀝니다. 도대체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읽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 잡겠냐'고 하나님께 묻자 응답을 얻어 아말렉을 추격하여 무찌르고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오히려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한 모든 재산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6절 말씀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복음적 충격요법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이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사용의 용례 중에서 재귀적인 사역형이 있는데 즉 내가 하는 행동이 나 자신에게로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을 재귀적 사역형의 문법적 내용을 고려하고 직역하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가 갖는 의미는 ‘600명 중의 그 누구에게서도 힘을 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자 힘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복음적 충격요법의 내막입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게 자신과 추종자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잃자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리더로서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생사를 함께 하는 600명 추종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기 위해 나섭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용기를 내었고 추종자들도 다시 다윗을 믿고 아말렉을 향해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더 큰 충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골리앗의 살아있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다윗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살아있음보다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여겼습니다. 또한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 때에 아기스 왕에 대해서도 아기스 왕의 살아있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다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어 갑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붙잡고 견뎌냈던 대적들과의 관계에서의 위기였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내게 속한 내 편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5절의 ‘(다윗의 두 아내 아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고 하는데 내 가족을 잃는 상실의 위기가 발생하고 추종자들이 돌로 치려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더 큰 충격을 생각해냅니다. ‘더 큰 충격’은 대적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현실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 때도 아기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들이 상실된 상황의 충격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상실되었다는 그 상황의 살아있음보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내 아내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추종자들이 돌로 치려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를 잃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떤 상황과 사건과 어떤 사람보다 먼저 현실로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잃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인데, 주님께서도 '가족이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상황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어서, 가족들보다 먼저 계셨고 나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대적은 활동영역에서 나의 목숨을 죽이려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마음에서 놓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선성을 내 사람들이 상실되는 충격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소유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충격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말렉이 나의 모든 식구들을 사로잡아 아무리 멀리 도망쳤더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내 집 앞마당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앞마당 밖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 문제의 충격에 빠지고, 암에 걸린 충격에 빠지고, 자녀들의 일이 나락으로 떨어져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나 인생에서도 충격에 휩싸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복음적 충격요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직장을 잃는 일에 마음이 빠져있음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우선적인 현실이 됨으로 하나님을 잃으면 죽음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직장 문제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궁지로 보였던 상황이 하나님 앞마당에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의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 앞마당에 있는 것들일 뿐 내게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해서 다윗과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을 사로잡아 간 것과 추종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상황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추종자들이 마음을 돌리고, 한 명의 목숨도 재산도 잃지 않고 다 되돌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충격에서 빠져나올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다면 복음의 충격요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충격요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

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내 마음이 먼저 이 세상의 상황에 빠져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돈 문제를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의 일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충격을 받아서 몰입하는 것이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큰 죄악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순교가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 지키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낸다면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이 죽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임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면 우리 삶에 궁지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잃으면 큰일 날줄로 알고 사람들이 나의 위기로 보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 앞마당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음적 충격요법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체득하고 도대체 위기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